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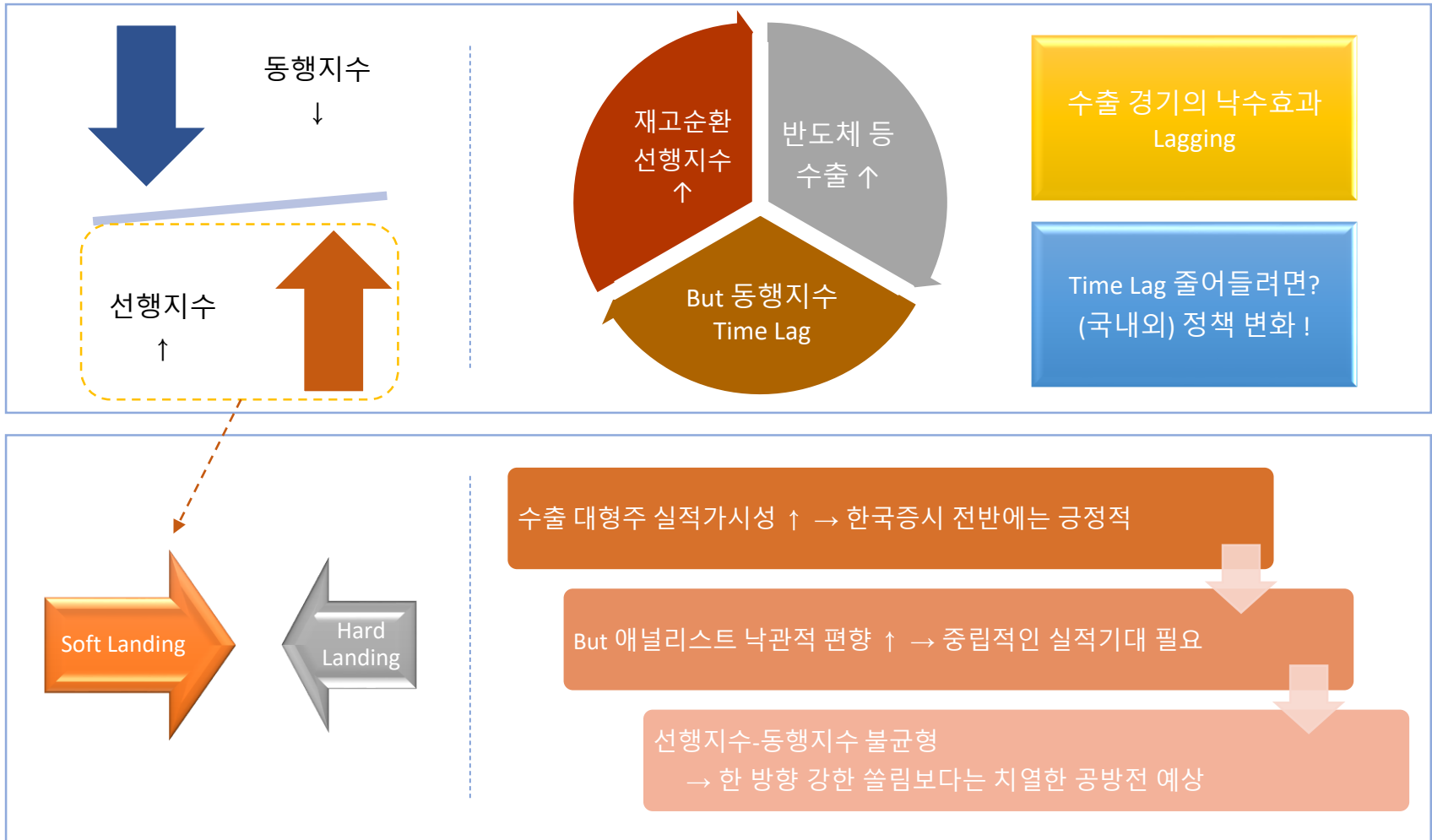
리딩 리서치의 2024 매크로 점검

< 한국 경기 변수를 중심으로 >

리딩투자증권 곽병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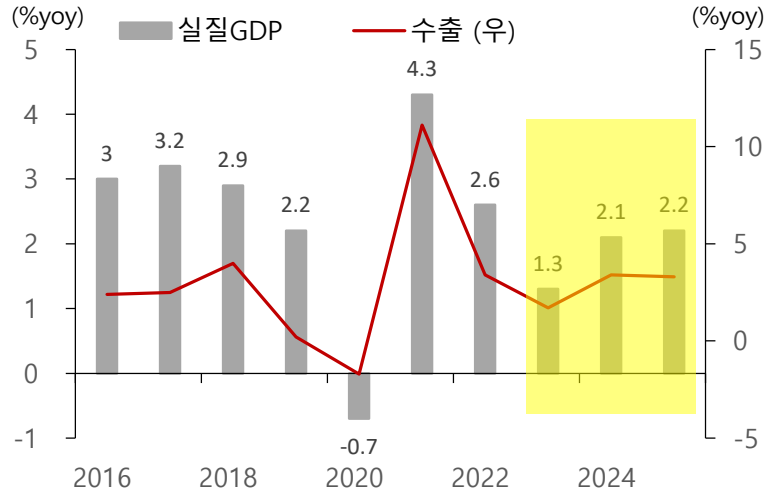
2023.12.05

4Q23~2Q24 중 국내 경기순환: 선행지수 ↑ vs. 동행지수↓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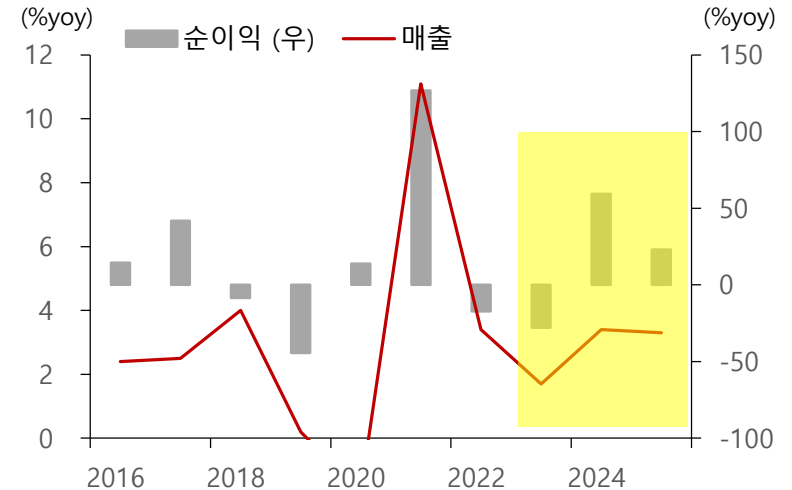
- 국내 연간기준 실질GDP 및 기업실적 전망 추이를 보면,
 - (블룸버그 기준) 실질GDP는 올해 1.3%에서 2.1%로 방향성 개선되나 2022년 수준(2.6%)은 미달
 - 경기방향성 개선은 수출 회복이 견인할 전망: 수출은 올해 1.7%, 내년 3.4% 증가 예상
 - 기업실적 역시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기저효과: 올해 순이익 113조원, 내년 180조원 예상
- 경제 및 기업 펀더멘털을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
 - 다만 미미한 경기 회복 레벨 및 애널리스트 낙관적 편향 우려는 경계요인

국내 연간 실질GDP 추이와 전망치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국내 기업 매출과 순이익 추이와 전망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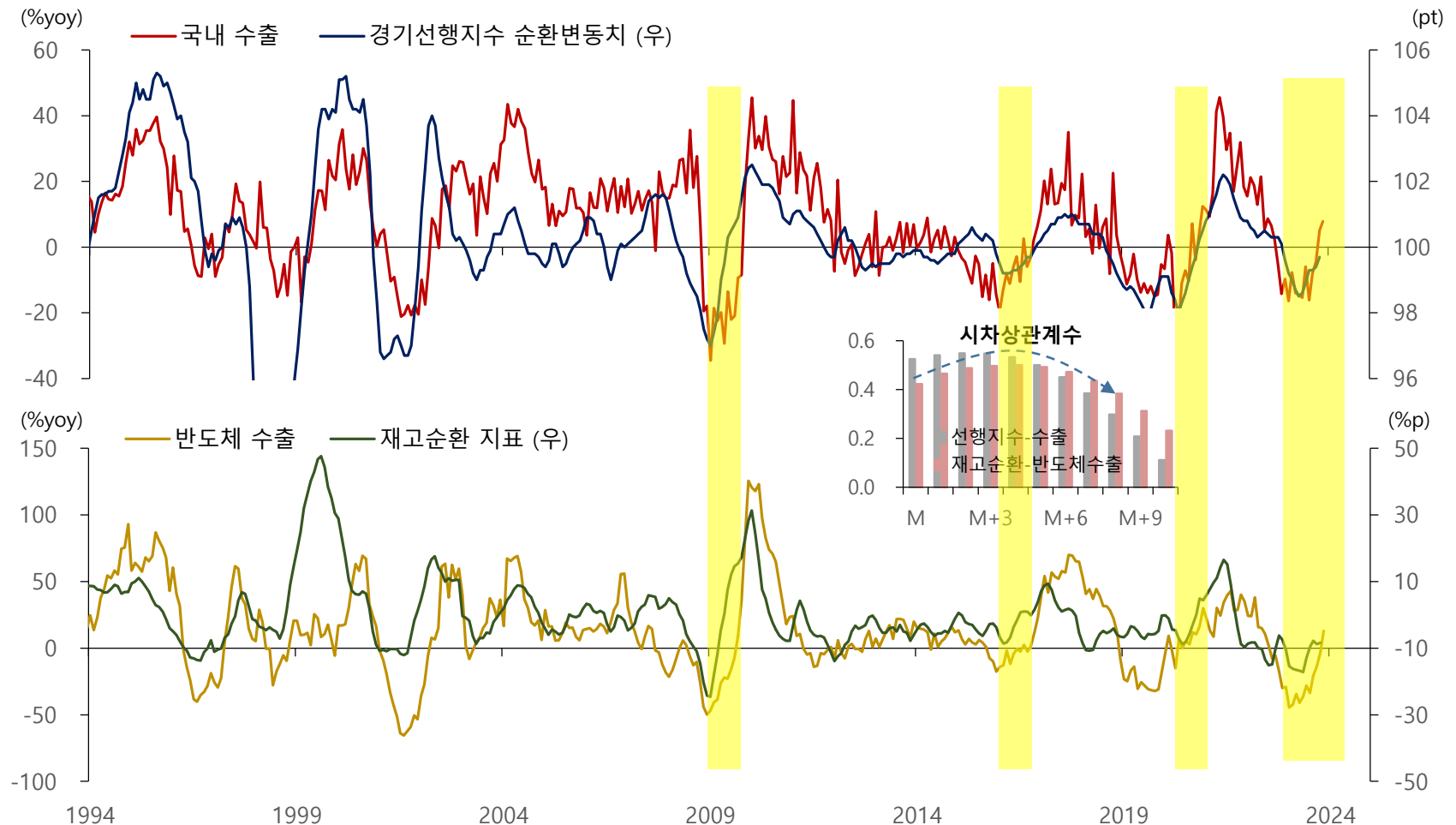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Dataguide, 리딩투자증권

3 반도체 수출 동력으로 선행지수 확장국면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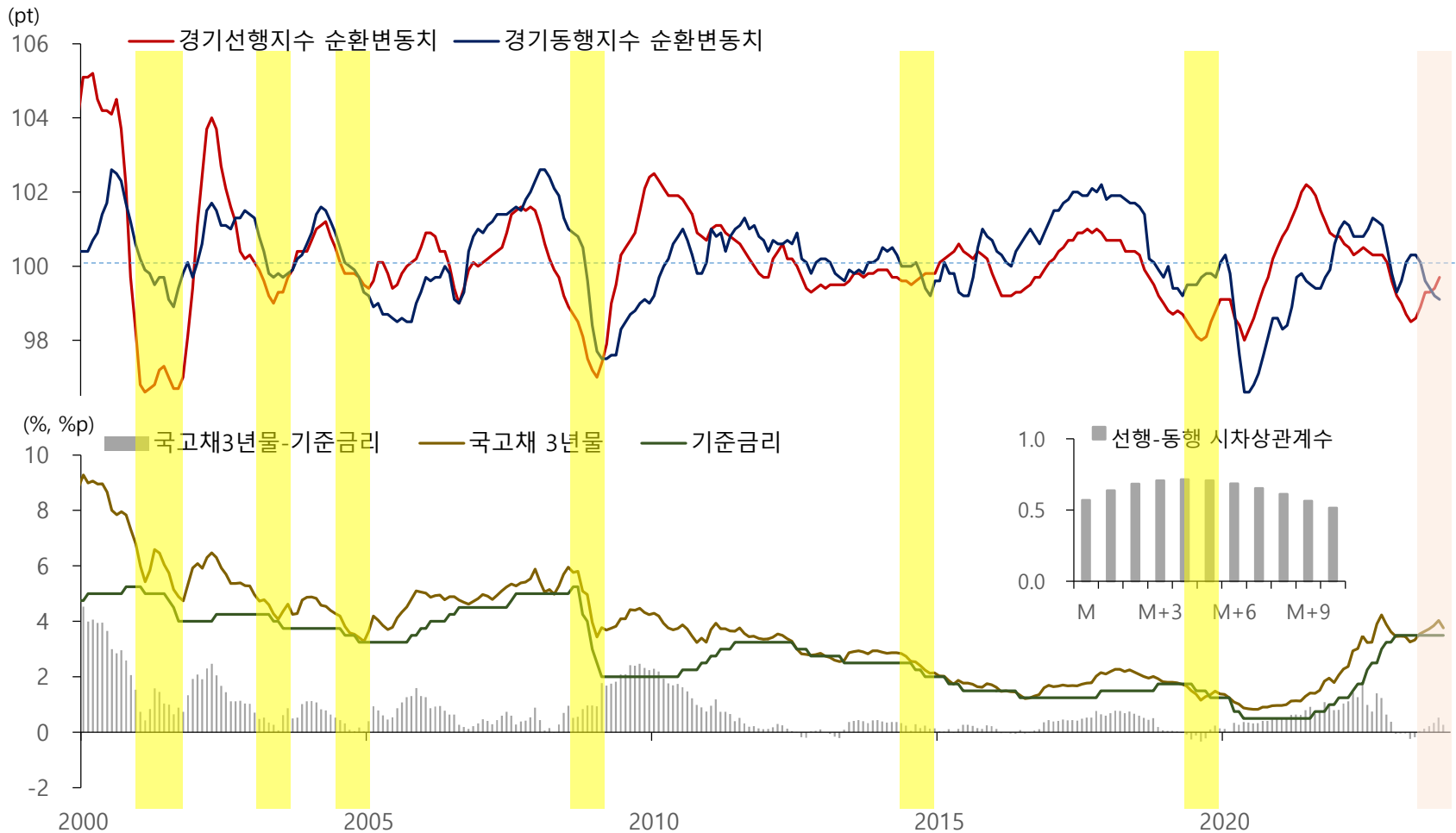
- 재고순환 지표 중심의 선행지수 반등은 반도체 수출 동력으로 선순환될 것으로 예상
- **재고순환 개선 이후 반도체 수출은 3~6개월 지연된 반응 시차** → 2024년 상반기까지 회복 국면

국내 선행지수 및 수출 : 반도체 수출 동력으로 추가적인 확장국면 예상



- 선행지수 상승국면에도 동행지수 부진 지속 예상 → 수출 경기의 낙수효과 Lagging (4~6개월)
- 동행지수는 기준선 100 하회 → Time Lag 줄이거나 동행지수 진폭을 줄이려면 정책 변화 필요

국내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 및 금리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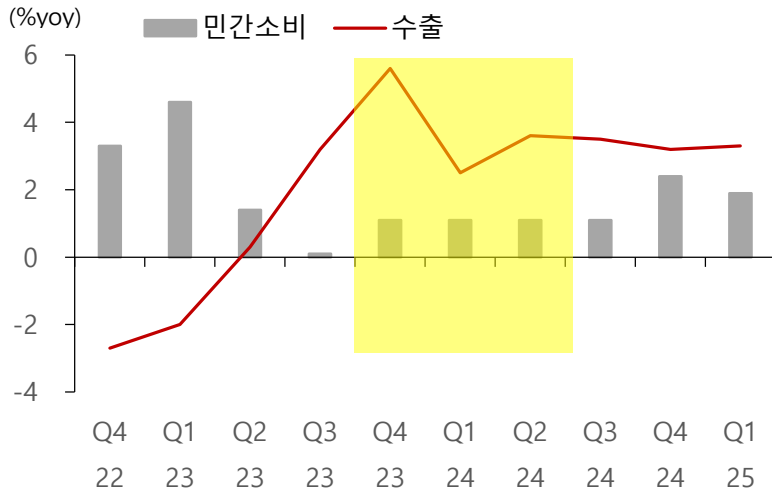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뉴욕연준,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5 경기 경로 짧게 보면, 한 방향 강한 쓸림보다는 치열한 공방전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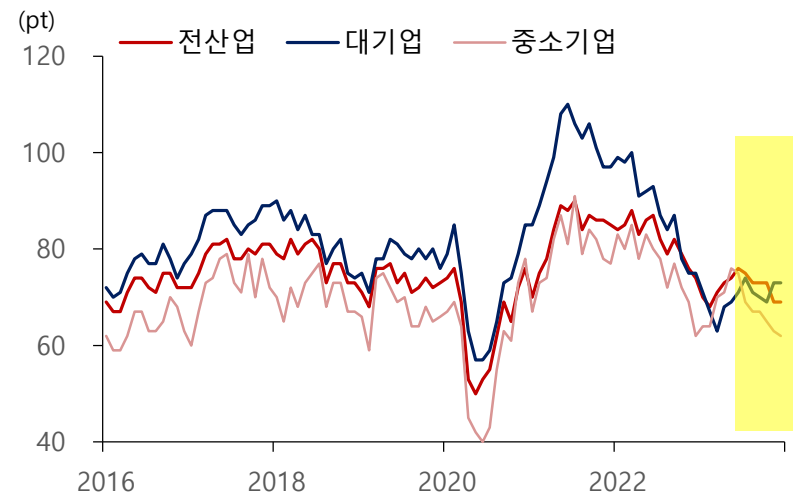
- 분기별 수출과 민간소비 전망 추이를 보면,
 - 이전보다는 개선되나, 수출 회복은 굴곡지고 민간소비 회복 레벨은 불만족
 - 기업경기실사 업황전망 지수(BSI) 상 산업 현장의 업황 신뢰도는 여전히 부정적
- 매크로 측면에서 한 방향 강한 쓸림보다는 치열한 공방전 예상
 - 선행지수 ↑ vs. 동행지수 ↓ : 미래 기대와 현재 업황의 충돌로 금융시장의 한 방향 쓸림은 부담
 - 선행지수 및 수출 경기의 Up-cycle 유효 기간: 2024년 상반기 (2024년 상고하저 방향성 예상)

국내 분기별 수출 및 민간소비 추이와 전망치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기업경기실사(BSI) 중 업황전망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, 리딩투자증권

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-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무단복제,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.